<전 매체> 2022년 5월 31일(화) 15: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문의 : 정책평가과 이희갑 과장(044-204-7460), 남기동 사무관(7462), 박철우 주무관(7466)

범부처 중기정책 총괄·조정기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혁신성장형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등 4개 안건 논의·확정

○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중소기업 자료(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체제(플랫폼)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체계 마련

○ 중기사업이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기업의 혁신 성장·성과 창출로의 전환을 촉진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1일(화) 중기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일시**) '21. 5. 31(화) 15:00 ~ 16:30, 중기부 6층 대회의실(세종)

◈ (**참석대상**)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30 (당연직 15, 위촉직 15)

* (당연직, 15) 중기부 장관(위원장), 기재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축산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여가부, 금융위, 공정위 등 차관(급)
* (협·단체장, 4)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정한,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 (연구원장, 2) 산업연구원 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 (전문가, 9) 서강대 김용진 교수, 서울대 유병준 교수, 위민 김남근 변호사,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 ㈜플래너리 이나리 대표, 숭실대 최자영 교수, ㈜피씨엘 김소연 대표, ㈜띵스플로우 이수지 대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승신 연구위원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향」,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 (**심의 안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
(**보고 안건**)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토의 안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력 방향

이날 정책심의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정부 각 부처가 개별 자료(데이터)를 축적하여 일부 활용하고 있었으나, 부처 간 칸막이로 본격적 활용이 미흡하고 민간에서도 공공자료(데이터) 활용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새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로 막힌 공공자료(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맞춤형 단번처리(원클릭)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적 사업 창출 등을 위한 디지털체제(플랫폼) 정부 추진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국정과제로 지난 3일에 공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계획'은 자료(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구체적 중소기업 빅데이터 체제(플랫폼) 구축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간 통계·체제(플랫폼)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기반을 마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처별 자료(데이터) 수집항목을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둘째,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간 자료(데이터) 자동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데이터) 오류 발생 시 환류(피드백)를 주는 등 시스템을 개선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기업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인력 등 지원 분야별 혜택 정보를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비서봇'을 개발하여 기업에 최적의 맞춤형 사업을 추천한다.

* (금융) 대출금리·한도액 등 우선순위별 제공, (인력)지원대상별 지원액순 제공 등

또한,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지역별 월간 매출정보, 기업간 거래지표 등 다양한 통계를 지원하고, 자료(데이터)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2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결과 및 개선방향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전 부처 중기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3)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신설('18.12)

'22년 평가대상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이 관리되는 50억원 이상 예산사업('21년 기준)으로, 총 137개 사업(12개 부처, 23조원)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그간 획일적인 정량평가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고유특성 및 정책중요도 등을 반영하였다.

평가대상 사업은 지원목적·방식·대상 등에 따라 8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성평가(60점)와 정량평가(40점)를 토대로 3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

* 금융(18), 기술(36), 인력(11), 창업(17), 수출(15), 경영판로(23), 소상공인(6), 인프라(11)
** (평가결과) 우수 25개, 보통 92개, 개선필요 20개

평가 결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보호, 유망·핵심기술 개발, 작업환경 개선, 대기업·창업기업 협력 등 현안에 적시 대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중기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산업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국토부), 클린사업장조성지원(고용부), 정보통신기술(ICT)창의기업육성(과기부), 기능성식품산업육성(농림부),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문체부) 등

평가 결과는 소관 부처 및 재정 당국에 제공하여 '23년 예산조정·제도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기사업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중심에서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성과 창출 전환을 촉진하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업의 혁신성장·성과가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편* 하고, 평가대상도 모든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정성지표) 도전적 기술개발, 창의적 인재 양성, 신기술·특허 성과, 민간투자 유치 실적 등 (정량지표)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R&D) 및 수출액 변화, 고성장 또는 혁신형 지원기업 지원 비중 등

이외에도, 평가위원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소관 부처의 의견반영을 위해 대면 인터뷰를 신설하고, 평가결과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규정 반영**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 사업평가제도 개선 방향 >

구분	현행	개편
평가관점	지원기업 생존·유지 중심	지원기업 혁신 기반 성장·성과 중심
평가대상	예산 50억원 이상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결과활용	예산 참고자료로 활용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규정 반영
평가방식	자체평가보고서 기반 서면 평가	서면 평가 + 대면 사업설명회
평가지표	全 사업에 동일 평가지표 적용	8개 평가분야별 특성화 지표 적용

3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중앙부처)

중기부는 각 부처가 신설·변경하는 지원사업 간 중복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운영 중이며,

① 사업간 유사·중복성, ② 사업 적합성, ③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22년 상반기에 15개 중앙부처, 134개 신설·변경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연구장비 바우처사업(중기부 vs 과기부), 기술보호사업(특허청 vs 중기부) 등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복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타 사업으로 연계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사전협의 결과는 소관 중앙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는 한편,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등 향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 남기동 사무관(☎ 044-204-7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계획

□ 추진목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요 >

◈ (심의회 구성)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30명 이내

* (당연직) 기재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금융위, 공정위 등 14개 부처 차관급

◈ (주요 기능)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심의·조정

□ 회의개요

○ (일시·장소) '22. 5. 31(화) 15:00 ~ 16:30, 중소벤처기업부 대회의실(6층)

○ (참석위원) 총 30명

- 당연직(15명) :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원) 14개 부처 차관(급)
- 위촉직(15명) : 중소기업 분야별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전문가 등

○ (주요내용) 중소기업지원 주요정책 및 이행계획 등 심의·의결

□ 상정 안건

구 분	상 정 안 건 명
심 의	<제 1 호> 중소기업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계획
토 의	<제 2 호>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력 방향
심 의	<제 3 호> '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향
보 고	<제 4 호> '22년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결과

붙임 2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 위촉위원 명단

□ 위촉직 위원(15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촉직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김기문
	소상공인연합회	회 장	오세희
	벤처기업협회	회 장	강삼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이정한
	산업연구원	원 장	주 현
	중소기업연구원	원 장	오동윤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남근
	서강대학교	교 수	김용진
	숭실대학교	교 수	최자영
	서울대학교	교 수	유병준
	㈜다산네트웍스	대 표	남민우
	㈜피씨엘	대 표	김소연
	㈜플래너리	대 표	이나리
	㈜띵스플로우	대 표	이수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신